

KIA 최원준, 소리없이 강하다

첫 두 자릿수 홈런 한개 남아
팀 내 도루 2위·73득점 4위
멘탈·기술 업그레이드 효과
자신감 상승에 결과 좋아져



KIA 타이거즈 최원준의 두 자릿수 홈런 도전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뛰는 야구'로 주목을 받았다. 도루왕 출신의 박찬호와

리그 탑 수준의 스피드를 가진 김도영, 여기에 최원준도 전역 후 본격적인 시즌을 보내게 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는 컸다.

기대대로 최원준은 묵묵한 활약으로 팀의 1위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 시즌 125경기에 나온 최원준은 타율 0.291, 54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또 김도영에 이어 팀 내 도루(21개)를 기록한 그는 73차례 홈을 밟았다.

연속 안타 행진도 펼치면서 강한 2번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고, 9번에서 공격을 잇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홈런이다. '호타준족' 최원준은 한 시즌 개인 최다홈런 기록이 4개였지만 올 시즌 9개의 홈런을 장식했다. 여기에 최원준이 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돈 9경기에서 KIA는 모두 승리했다. '최원준 홈런=승리' 공식이 만들어졌다. 일단 자신감 있는 자기 스윙이 홈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원준은 "초반에는 너무 조급해서 맞히려려고만 했다. 보여줘야겠다는 심리만 강하니까, 결과만 쫓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초반에 잘 안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력에 비해 부족했던 결과에 마음이 급했던 최원준이다.

지난 시즌 중반 상무에서 전역했던 최원준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기다린 팬분들이 있고 더 발전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스스로 많이 했었다. 군대에서는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없었다. 공도 잘 보고 싶고 타율도 더 올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다. 군대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다"며 "반시즌이었지만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꼭 다시 보여줘야겠다는 조급함이 야구장에서 기술적으로도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1군이라는 긴장감과 1루라는 낯설도 최원준의



KIA 타이거즈의 '호타준족' 최원준이 올 시즌 9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더 강해진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최원준이 홈런을 기록한 날 팀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KIA 타이거즈 제공〉

걸음을 막았다.

최원준은 "1군에서 많이 뛰다가 군대를 갔는데 퓨처스는 긴장감이 다르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했는데, 다시 이런 긴장감이 있는 1군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 떠나 있으면서 그걸 간파했던 것 같다. 팀 적응에는 문제가 없었다. KIA에 오래 있던 선수라는 자부심이 있다. 1군 긴장감 적응은 필요했다"며 "(지난해) 팀 사정상 1루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지만 오랜만에 1루를 들어가다 보니 소심해졌다. 1루에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외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원준, 심적인 부담감을 떨어낼 수 있던 바탕에는 '노력'이 있었다.

최원준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2021

년도 좋았을 때 타석 위치나 연습 방법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다. 조승범 전력 분석 코치님이 분석 많이 해주셨다. 그때 좋았던 몸동으로 스윙하는 법을 연습했다"며 "시합을 안 나갈 때도 미국에서 쓰는 몸을 사용하는 드릴 방법 등 연습 방법을 추천해 주셨다. 꾸준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꾸준히 했던 게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꾸준한 훈련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을 살린 그는, 힘까지 더해 홈런을 만들어가고 있다.

"10홈런을 치면 (최)형우 선배님이 300만원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셨다"며 웃은 최원준은 "몸을 쓰는 드릴 덕분에 홈런도 나오는 것 같다. 홈런은 손힘만으로는 칠 수 없다. 몸통 회전이 잘 되는 것 같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멘탈적인 부분도 정착이 된 것 같다.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우연히 갑자기 잘 된 것은 아니다"고 자신과 코치진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월드컵 '주먹다짐' KIA 김두현, 1경기 출장정지

베네수엘라 메디나는 4경기

23세 이하 야구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 내야수 김두현(KIA)이 한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두현을 향해 위험한 슬라이딩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이달과 메디나(베네수엘라)는 네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은 10일 "23세 이하 야구월드컵 기술위원회가 김두현에게 한 경기, 메디나에게 4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사오싱에서 열린 대회 오프닝라운드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 중 한국이 4-6으로 끝

러가던 7회초에 사건이 발생했다. 2루 주자였던 메디나는 베하라노 바이바의 번트 때 3루로 향했다.

메디나는 발을 높게 든 채 슬라이딩했고, 3루수 김두현은 메디나의 발에 걸려 쓰러졌다.

김두현은 화를 참지 못하고 메디나의 허리를 쳤고, 메디나는 주먹을 휘둘렀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달려 나오는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진 후 사태는 수습됐다.

대회 기술위원회는 위험한 슬라이딩에 주먹을 휘두른 메디나에게 네 경기 출장 정지, 메디나의 허리를 가격한 김두현에게 한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에 4-8로 패했다.

/연합뉴스

'슈퍼 루키' 유현조 2연승이나...4승 다관왕이나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웃맨
13일부터 인천서 뜨거운 샷대결
박지영·박현경·윤이나·배소현 출격

'슈퍼 루키' 유현조의 우승과 함께 2024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까지 치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이번 주에도 뜨거운 경쟁을 이어간다.

13일부터 사흘간 인천 클럽72 하늘 코스(파72·6723야드)에서는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웃맨 오픈(총상금 8억원)이 열린다.

이번 시즌 KLPGA 투어의 31개 대회 중 23번째 대회다.

이제 2024시즌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상금과 대상 포인트에서 박지영이 1위(10억1310만원·436점)를 달리고 있고, 박현경이 두 부문 모두 2위(9억7797만원·410점), 윤이나가 3위(8억7360만원·392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배소현과 이예원이 박지영, 박현경과 더불어 올해 3승씩 올려 함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여기에 8일 끝난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선 신인 유현조가 첫 우승을 달성하면서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KLPGA 투어 신인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의 임희정 이후 5년 만이며, 신인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투어 첫 승을 따낸 것은 2013년 한국여자오픈 전인지 이후 11년 만이었다.

이번 시즌 정규 투어에 데뷔해 단 한 차례만 컷 탈락하고 꾸준한 성적을 올려 오던 유현조가 우승



유현조



박지영

물꼬를 트고 기세를 올리며 막판 판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2주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선 유현조를 필두로 박지영, 박현경, 윤이나, 배소현이 모두 출격한다.

유현조는 "우승 후 자신감이 붙었고, 퍼트 감각이 나쁘지 않아서 샷에 집중하면 또 한 번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2주 연속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박지영, 박현경, 배소현은 4승 선착 경쟁을 이어간다. 이들 중 박지영은 4월 클럽72 하늘 코스에서 열린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정규 투어 53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달성한 마다숨은 타이틀 방어로 두 번째 우

승을 정조준한다.

황유민, 방신실, 박민지, 2022년 이 대회 챔피언 김수지 등도 우승 후보로 꼽을 만한 선수들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최혜진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혜진은 올 시즌 3번째로 KLPGA 투어 대회에서 팬들과 만난다.

그는 앞서 7월 롯데 오픈에서는 공동 20위에 올랐고, 지난달 초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는 컷 탈락한 바 있다. 이밖에 김민솔과 유현주가 추천선수로 출전하며, 올해 3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3위에 올라 존재감을 각인한 오수민 등 아마추어 선수 3명도 프로 선수들과 샷 대결에 나선다. /연합뉴스

PGA 투어 가을 시리즈 12일 개막

프로코어 챔피언십 배상문·김성현·이경훈 출격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시즌 가을 시리즈가 12일 시작한다.

PGA 투어 2024시즌은 이달 초 끝난 투어 챔피언십을 통해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페덱스컵 챔피언으로 배출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투어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 상위 50명이 2025시즌 주요 대회인 시그니처 이벤트 출전 자격을 획득한 것도 확정됐다.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의 실베라도 리조트 노스코스(파72·7123야드)에서 개막하는 프로코어 챔피언십(총상금 600만 달러)을 시작으로 10월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슈라이너스 힐드런스오픈, 조조 챔피언십, 11월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 버뮤다 챔피언십, RSM 클래식까지 8개 대회가 가을 시리즈에 해당한다.

가을 시리즈 대회 우승자에게는 2년간 투어 출전 자격을 주고 2025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메이저 대회 출전권 등을 주는 것은 일반 투어 대회와 같다.

가을 시리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은 다음 시즌 출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게 된다.

투어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 70위 이내 선수들은 이미 2025시즌 출전권을 따냈지만 그 이하 선수들은 투어 대회 우승 경력 등 다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1월 RSM 클래식까지 페덱스컵 순위 125위 안에 들어가야 2025시즌에도 PGA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 가을 시리즈 종료 시점에 페덱스컵 순위 51~60위가 되면 2025시즌 초반 두 차례 시그니처

대회에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투어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 50위 안에 들지 못한 선수들로서는 가을 시리즈 대회에서 순위 경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포터컵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올해 프로코어 챔피언십의 '디펜딩 챔피언' 사히만 시갈라(미국)도 올해 페덱스컵 순위 3위지만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 시갈라와 2021·2022년 2연패를 달성한 맥스 호마(미국)를 비롯해 워덤 클라크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는 배상문, 김성현, 이경훈이 출전하고 강성훈은 대기 선수 명단에 들어 있다. 교포 선수로는 이민우(호주), 김찬(미국) 등이 나온다.

김성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2타 차 준우승을 차지한 좋은 기억이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는 13일부터 사흘간 미국 일리노이주 볼링브룩에서 LIV 골프 시카고 대회(총상금 2500만 달러)를 연다.

이 대회는 올해 개인전 마지막 대회로 이 대회를 통해 시즌 챔피언이 정해진다.

현재 윤 램(스페인)이 195.17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호아킨 니만(칠레)이 192.20점으로 2위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